



---

# 현대자동차 책임광물 보고서

---

2026. 5

# [1. 개요]

## 가. 발간 목적

현대자동차는 ‘인류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당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의 윤리적 책임 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코발트 및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 등은 주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환경 오염의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광물의 불법 채굴 및 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협력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기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식별, 평가, 예방, 완화, 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포함한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원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과 「EU 배터리 규정(EUBR)」 등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책임/분쟁광물 관리를 이행합니다. 본 보고서는 현대자동차의 원자재 조달 및 구매 과정에서의 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와 책임 있는 광물 실사(Due Diligence) 노력을 이해관계자 및 공중에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을 다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 나. 보고 범위

### [책임광물 적용 부품·소재 현황]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함에 따라, 차량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범위와 중요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차체 및 엔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철,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및 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분쟁광물 및 기타 책임광물(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조달이 당사 공급망 관리의 핵심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대자동차의 주요 차량 및 전동화 부품에 사용되는 책임광물의 공급망 전반을 관리 범위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책임광물 관리대상에 포함된 22종의 광물 중 주요 차량부품에 적용되는 광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자재 및 책임광물 적용 부품

부문	차량 적용 부품·소재
주석	차량용 커넥터, 센서, 인쇄회로기판 등
텅스텐	밸브, 점화플러그, 피스톤 링 등
탄탈럼	센서 회로, 통신 모듈, 전자 제어 장치, 커패시터 등

부문	차량 적용 부품·소재
금	ECU 회로, 커넥터 도금, 센서 접점 등
코발트	배터리, 고온 베어링, 터빈 블레이드, 배기가스 정화촉매 등
니켈	배터리, 밸브, 엔진, 스테인리스 강 등
리튬	배터리, 휠 베어링 등
천연흑연	배터리, 윤활제, 충전제 등
구리	배터리, 배선, 커넥터, 모터 등
운모	배터리, 모터 등
철	차체, 엔진, 휠, 볼트 등
알루미늄	변속기, 모터, 엔진, 휠 등

### [보고 대상 기간]

본 보고서의 주요 활동 대상 기간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입니다. 다만,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한 광물 관리 노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2026 년의 주요 목표가 내용에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 [2. 책임광물 관리 체계]

### 가. 책임광물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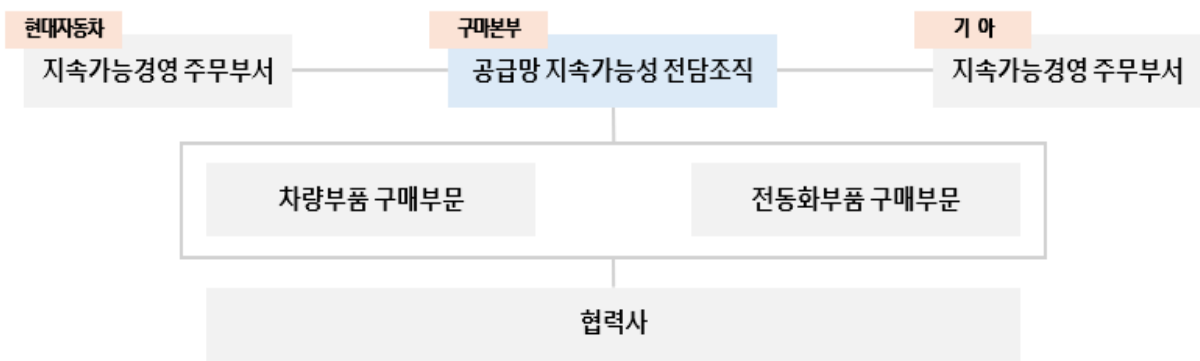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준과 관련 법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책임광물 정책, 협력사 행동규범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통해 전사적인 광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책임/분쟁광물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급망 전 단계에서 아동노동 및 직·간접적인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 조달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주민 공동체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Link](#))
- 현대자동차 책임광물 정책 ([Link](#))
-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Link](#))

### 나. 책임광물 관리 조직

현대자동차는 책임광물 관련 사회적 책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관리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본부 내 공급망 지속가능성 전담 조직은 각 구매 사업부 및 협력사의 책임광물 리스크를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합니다. 또한, 전사 부문의 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운영을 담당하는 현대차·기아 지속가능경영 주무 부서를 비롯해 대외 업무, 법무 담당 부서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분기별 협의체 정례 미팅을 통해 책임광물 관련 리스크를 전사적 ESG 관점 및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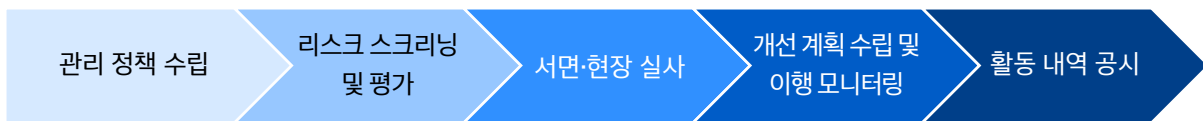
### 다.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 내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 있는 조달 관리 시스템

(Responsible Sourcing Management System, RSMS)과 공급망 실사 절차(Supply Chain Due Diligence Procedure)를 구축하였습니다.

RSMS 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핵심 기준으로 하며, OECD 부속서 II(Annex II)에서 정의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및 「EU 배터리 규정」을 포함한 주요 국제 프레임워크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본 정책 및 국제 기준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조달 관리 시스템(RSMS, Responsible Sourcing Management System)의 성과와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 년 8 월 관련 부서 간 내부 협의를 거쳐 현대자동차 책임광물 정책을 개정하였으며, 글로벌 모범 사례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RSMS 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RSMS 는 최소 2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개정되며, 상황 변화, 관련 규제 개정, 공급망 리스크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보다 앞당겨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현대자동차 2025년 책임광물 관리 현황]

#### 가. 관리 대상 광물

##### [책임광물 관리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관리 광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당사는 광물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쟁광물 4종(탄탈럼, 주석, 텅스텐, 금)과 코발트 등 총 5종의 광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배터리 소재를 포함하여 채굴과정의 인권/환경 리스크가 우려되는 22종의 광물을 책임광물 관리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중 광물별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중점관리대상광물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 [책임광물 중대성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는 당사 공급망 내 분쟁지역에서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으로 채굴·유통되는 분쟁광물과, 채굴 과정에서 인권 및 환경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책임광물의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의 사업과의 연관성 및 관리 필요성이 높은 핵심 광물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2025년에는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물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관리 대상 광물을 도출하였습니다.

- 글로벌 법규 동향: 「EU 배터리 규정」 등 주요국의 신규 규제 및 법적 의무 사항
- 고위험 지역 분포도: 광물의 주요 생산지가 분쟁 및 고위험 지역(CAHRAs)에 속하는지 여부
- 인권·환경 리스크 영향도: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심각한 환경 파괴, 젠더 기반 폭력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의 중대성
- 당사의 조달 전략: 해당 광물이 당사의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미치는 중요도 및 조달 비중
- 이해관계자 관심 (미디어 스크리닝 실시, NGO·협력사·협회·학계 관심 영역 반영)
- 기타(글로벌 인증 여부)

평가 기준	분쟁광물 (주석, 텅스텐, 탄탈럼, 금)	배터리 소재 광물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흑연)	기타 광물 (운모, 백금, 팔라듐, 로듐 등)
글로벌 법규	High	High	Low
고위험 지역 분포*	High	High	Mid
인권·환경 리스크	High	High	Mid
전략적 조달	Mid	High	High
이해관계자 관심	High	High	Mid
기타(글로벌 인증 여부 등)	High	Mid	Low
<b>중대성 평가 결과</b>	<b>High (중점 관리 대상)</b>	<b>High (중점 관리 대상)</b>	<b>Mid</b>

\* 고위험 지역(CAHRAs)의 구체적 범위는 OECD 책임광물 실사 가이드스 및 관련 법규상 정의를 준용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검토/갱신됨

평가 결과, 총 22종의 책임광물이 관리 대상 광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리스크의 중대성과 당사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코발트, 니켈, 리튬, 천연흑연 총 8종 광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리대상 22 개 광물에 대해 CMRT, EMRT, AMRT 서베이를 통해 당사 차종에 사용되는 부품의 광물 함유 현황 및 인증제련소 거래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8 종 광물에 대해서는 광산 및 제련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서면실사(SAQ)를 병행하여 공급망 내 리스크 요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6 년 1 월 기준, 우선 관리 대상 22 종 책임광물 중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 제련소가 존재하는 광물은 16 종이며, RMAP 인증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광물은 6 종입니다. RMAP 인증 제련소가 존재하는 16 종 광물에 대해서는 인증 제련소를 통한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미인증 제련소 사용 시 합리적인 기간 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MAP 인증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6 종 광물에 대해서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선의 노력 의무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해당 광물의 책임 있는 조달을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국제 산업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며, 대체 검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 요구됩니다.

### [광물별 관리 방안]

현대자동차는 원자재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따라 광물을 분류하고 차별화된 실사 방안을 적용합니다.

구분	관리 템플릿	관리 방안
분쟁광물	CMRT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RMAP <sup>1)</sup> 인증 제련소 여부 확인
배터리 소재 광물	EMRT (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인증 제련소 여부 확인, OECD 가이드라인 기반 실사
기타 광물	AMRT (Additional Minerals Reporting Template)	LPPM <sup>2)</sup> 등 관련 인증 여부 확인, OECD 가이드라인 기반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조치 수행

<sup>1)</sup>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가 운영하는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로, 공급망 내 분쟁 광물 사용 여부 확인 및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sup>2)</sup> LPPM (London Platinum and Palladium Market): 런던 귀금속 시장의 백금 및 팔라듐 거래 감독 기관으로, 해당 기관에서 백금 및 팔라듐 공급망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 인증 프로그램(Responsible Sourcing Programme)을 운영합니다.

### [중점 관리 대상 광물 소개]

분쟁광물과 핵심 배터리 소재 등 8 개 중점 관리 대상 광물의 주요 생산지와 제품 내 사용처, 공급망 내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물명	주요 생산지	주요 사용처	주요 이슈
탄탈럼 (Tantalum, 원소기호: Ta)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모잠비크	전기 부품, 고온 정밀 합금, 의료 기기 등	무장 세력 자금 조달, 강제 이주, 원주민 권리 침해 우려가 높으며, 채굴 과정의 산림·토양 파괴와 대기 오염 이슈가 빈번함
주석	중국, 인도네시아	전자제품 납땜용 솔더,	영세 수작업 채굴 의존도가 높고, 분쟁 자금

광물명	주요 생산지	주요 사용처	주요 이슈
(Tin, 원소기호:Sn)		도금, 합금, 화학 소재	조달 및 아동 노동 리스크가 크며, 생물다양성 보존지역 침해 및 산성·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이 존재함
텅스텐 (Tungsten, 원소기호: W)	중국, 베트남	초경합금, 고속강 공구	무장 세력 자금 조달, 강제 이주, 원주민 권리 침해 우려가 높으며, 채굴 과정의 산림·토양 파괴와 대기 오염 이슈가 빈번함
금 (Gold, 원소기호: Au)	중국, 인디아, 남아메리카 등	전자 부품 연결 및 도금, 장신구, 투자 자산	분쟁 지역에서의 무장 세력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리스크가 크며, 제련 시 유해 화학물질 사용과 산성 배출로 인한 심각한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함
코발트 (Cobalt, 원소기호: Co)	콩고민주공화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전기차, 휴대전화, 컴퓨터의 리튬이온 배터리 등	영세 수작업 채굴 비중이 높아 아동 노동, 부패 및 산성 폐수 배출 리스크가 높음. 당사 현장 실사 결과, 중대 인권 침해는 없었으나 테일링 (광물 찌꺼기) 시설 침식 등 환경·안전 인프라 이슈가 식별됨
니켈 (Nickel, 원소기호: Ni)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유해 화학물질 및 산성 폐수 유출, 생물다양성 훼손 및 원주민 권리 침해 리스크가 큼. 당사 현장 실사 결과, 화학물질 보관 등 일부 물리적 안전조치 미흡 및 근로계약 조항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리튬 (Lithium, 원소기호: Li)	호주,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세라믹, 유리	채굴 시 수자원 소모 및 오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과 원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 리스크가 높음
천연흑연 (Graphite, 원소기호: C)	중국, 브라질, 모잠비크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윤활제, 연필심 등	아동·강제 노동 및 부패 리스크와 함께, 채굴 및 가공 시 유해 물질 관리 미흡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가 존재함

## 나. 책임광물 정책 준수

현대자동차는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관리 정책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사적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당사 공급망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광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핵심 노동 원칙 전반(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근절, 고용 및 직업에 있어 차별의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보장)과 생활임금 지급 등을 포괄하며, 공급망 내에서 다음의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동권 기준이 광물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협력사 평가 및 현장 실사의 점검 항목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책임 조달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윤리적 조달 활동을 이행하는 기반이 됩니다.

### [임직원 책임광물 교육]

현대자동차는 책임광물 관련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정책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조달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책임광물 정책 교육]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책임 광물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력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임광물 관리 가이드를 배포하고, 연 1 회 정기적인 협력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 년 3 월에는 1 차 협력사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책임광물 관리 배경과 글로벌 규제 동향, 당사의 관리 방침을 공유하였으며, 실무적인 CMRT/EMRT 작성법 및 RMAP 인증 제련소 활용 방법을 전수하여 협력사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의 책임광물 정책을 하위 공급망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에 걸친 윤리적 조달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책임광물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이를 계약 및 등록 프로세스 전반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력사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및 합의서 내에 책임광물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협력사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2025 년에는 개정된 책임광물 정책 및 협력사 행동규범의 핵심 사항을 신규 계약서에 전면 반영함으로써, 협력사가 강화된 책임/분쟁광물 관리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2025
책임광물 설명회	명	1,893
ESG 정책 개정사항 교육	명	2,096

### [협력사 RMAP 적합 판정 제련소 사용 확약서 징구]

2026 년 현대자동차는 책임광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 차 협력사와 'RMAP 적합 판정 제련소 사용 확약서'를 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MAP 인증 제련소 사용 장려: RMAP 인증 제련소가 존재하는 책임광물의 경우, 인증 제련소를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 미인증 제련소 인증 취득 독려: 미인증 제련소를 사용 중인 경우, 합리적 기간 내 RMAP 적합 판정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 RMAP 인증 제련소 없는 경우: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선의 노력 의무를 적용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조치: OECD 책임광물 실사 지침 Annex II 상 중대한 인권·환경 위험이 식별됨에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필요 시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RMAP 적합 판정 제련소 사용 확약서'를 통해 1 차 협력사가 자사의 하위 공급망(2 차·3 차 이하 협력사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한 RMAP 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책임광물 관리 정책이 1 차 협력사를 넘어 광물 공급망 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다. 리스크 스크리닝

현대자동차는 책임/분쟁광물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매핑을 실시합니다.

### [광물별 밸류체인 식별]

당사는 RSMS 내 상위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디지털화하여 광물 소싱 경로를 식별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g. 리튬(Li)

Upstream: 리튬 광산 채굴 → 정제(Li<sub>2</sub>CO<sub>3</sub>/LiOH 생산)

Midstream: 양극재 제조, 배터리셀 제조

Downstream: EV 완성차, 배터리팩 조립

이에 제품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당사 차종에 사용되는 광물 사용 품목 정보를 파악하고 광물 사용 협력사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 [CMRT/EMRT/AMRT 조사]

공급망 내 광물 사용 현황 조사를 위해 당사에 양산 부품을 납품하는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CMRT, EMRT 및 AMRT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이 미진한 협력사에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책임/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재차 설명하여, 약 93% 이상의 자료 제출 응답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분쟁광물(3TG: 주석·탄탈럼·텅스텐·금) 실제 사용을 확인한 협력사는 약 630 개사입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CMRT/EMRT 자료를 기반으로 인증제련소(RMAP) 거래현황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증제련소와 거래하지 않는 협력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 시행 및 인증제련소와의 거래를 요청하였으며, 모든 협력사가 책임/분쟁광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내 책임광물 제련소 현황]

당사 공급망 내 식별된 제련소/정제소(SoR)가 소재한 국가는 광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탄탈럼: 13 개국 (독일, 미국, 브라질, 일본, 인도, 중국, 르완다 등)
- 주석: 23 개국 (대만, 벨기에, 볼리비아, 베트남, 스페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DRC 등)
- 텅스텐: 12 개국 (대만, 독일, 베트남, 브라질, 중국, 필리핀, 일본, 한국 등)
- 금: 47 개국 (독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인니, 일본, 짐바브웨, 한국 등)
- 코발트: 23 개국 (모로코, 미국, 인니, 인도, 중국, 필리핀, 한국, DRC 등)
- 니켈: 14 개국 (남아공, 미국, 벨기에, 브라질, 인니, 인도, 일본, 중국, 호주 등)
- 리튬: 6 개국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칠레, 호주)
- 천연흑연: 1 개국 (중국)
- 구리 : 23 개국 (미국, 벨기에, 브라질, 칠레, 터키, 중국, 짐바브웨, 잠비아, 호주, 한국, DRC 등)

###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 매핑]

CAHRAs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는 무장 충돌, 취약한 거버넌스 및 안보 부재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환경 위험이 존재하거나 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는 CAHRAs 지역 협력사를 필터링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합니다.

당사는 EU CAHRAs 목록뿐만 아니라 각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공신력 있는 외부 지표를 바탕으로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도드-프랭크법 규제 대상 국가 및 Human Development Index, U.S. Department of Labor (USDOL) List, Heidelberg Conflict Barometer,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등 RMI 가이드스에서 CAHRAs 식별 시 참조하도록 요구하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판단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 Annex II에서 정의한 위험 신호(Red Flag)를 공급망 리스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EU 배터리 규정(EUBR)의 실사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배터리 공급망을 대상으로 분쟁 및 고위험 지역(CAHRAs) 기반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EUBR 추적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 완료 후 보다 세분화된 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 라. 서면 실사 및 현장 실사

공급망 지정학적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공급망 및 중점 관리 대상 책임광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리스크를 검증하는 다층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쟁광물(3TG)을 비롯해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흑연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취급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책임광물 관련 문항이 포함된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서면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면진단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공급망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제 3 자 전문기관을 통한 책임광물 현장 실사를 병행합니다.

### [현장 실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리스크 스크리닝 과정에서 고위험 공급망으로 식별된 협력사를 중심으로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및 「EU 배터리 규정」 등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에 기반한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독립적인 제 3 자 기관을 통한 실사 수행 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며, 실사 결과는 협력사에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이후 협력사에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광산 및 제련소 실사 현황]

현대자동차는 2025년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실사 기관(RCS Global)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총 3 건의 광산 및 제련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현장 실사에는 독립적인 제 3 자 기관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대자동차 내부 책임광물 담당자가 동행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리스크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실사는 OECD 실사 가이드, EU 배터리 규정(EUBR), IRMA 책임광물 기준(Critical Requirements)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인권·노동·환경·거버넌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구리(Co·Cu) 광산 및 제련소 1 건, 인도네시아 니켈(Ni) 제련소 1 건, 니켈(Ni) 광산 1 건을 포함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CAHRAs)으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니켈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 이슈가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8개 광산 및 제련소에 대해 실사 진행 예정으로 지속적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분	단위	2025	2026 (목표)
광물/정제련소 현장실사 건	개사	3	8

**[사업장별 현장 실사 결과]**

**코발트·구리(Co-Cu) 광산 및 제련소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소재의 코발트·구리 통합운영 시설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은 유효한 광업 허가증을 바탕으로 자체 광구 내에서만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토지 취득 시 관련 법적 절차(사전동의 등)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불법 무장세력 연루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권·노동 관리 체계와 환경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 실사 프로세스 부재, 대외 고충처리 채널 미비 등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다수의 부적합 사항이 식별되었으며, 환경 측면에서는 ISO 14001 인증 일시 중단, 테일링 시설 내 대형 침식 방지, 그리고 안전 모니터링을 전담할 책임 기술자 부재 등 중대한 환경·안전 리스크가 식별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발견된 리스크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계획 제출 및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개선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니켈(Ni) 광산 (인도네시아)**

해당 사업장은 광산 내부에서 직접 채굴한 니켈만을 조달하여 외부 원산지 혼입 리스크가 원천 차단되어 있으며, ISO 14001 및 ISO 45001 인증 유지, 인도네시아 환경부 PROPER 'Green' 등급 획득 등 현장 단위의 환경, 안전, 보건 관리 영역에서 우수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숙소 시설 대상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도입 시작 및 지역사회 모성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운영 체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다만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공급망 상위 거버넌스' 구축이 주요 과제로 식별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책임광물 조달 정책의 부재, 분쟁 및 고위험 지역 식별 절차 미비, 실사 결과에 대한 대외 공개 보고 미실시 등 체계적인 공급망 실사 관리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점이 부적합으로 식별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 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니켈(Ni) 제련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부술라웨시 모로왈리에 위치한 대규모 니켈 습식 제련소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ERP(전사적자원관리) 기반의 광물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급망 투명성 측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아동노동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인권 실사 및 고충처리 채널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 계약 내 과도한 징계 공제 조항이 존재하여 일부 개선 과제가 식별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안전 및 테일링(광물 찌꺼기) 관리 역량 고도화가 핵심 개선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위험화학물질 창고 내 2차 보관 용기 미비와 실내 운동시설 및 유해 폐기물 창고 내 비상구 표지판, 비상 조명 누락 등 물리적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위성 영상을 활용한 테일링 축적물의 높이·경사도 분석 등 선제적인 물리적 안전 모니터링 체계 보안을 권고하여 현재 개선 이행을 점검 중입니다.

### 현장실사 결과 - 분야별 부적합(Non-conformance) 현황

2025 년 실시한 3 건의 현장 실사 결과, 총 58 건(중위험 부적합 47 건, 저위험 부적합 11 건)의 부적합이 식별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와 인력이 투입되는 광산 및 제련소의 운영 특성이 반영되어, 근로 환경과 직결된 '사회적 책임(안전보건, 노동 조건 등)' 및 '환경 책임(테일링 시설 등)' 영역에서 중점적인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정책 명문화 등 '거버넌스 및 실사 관리 체계' 영역에서도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구리(Co-Cu) 광산 및 처리시설
실사 관리 체계	1 건	8 건	9 건
거버넌스	1 건	3 건	4 건
사회적 책임	2 건	6 건	10 건
환경 책임	2 건	0 건	12 건
<b>합계</b>	<b>6 건</b>	<b>17 건</b>	<b>35 건</b>

### 현장 실사 결과 - 부적합 심각도 구분

분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구리(Co-Cu) 광산 및 처리시설
Critical (고위험 부적합)	0 건	0 건	0 건
Major (중위험 부적합)	3 건	16 건	28 건
Minor (저위험 부적합)	3 건	1 건	7 건
<b>부적합 합계</b>	<b>6 건</b>	<b>17 건</b>	<b>35 건</b>

### 마. 개선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실사 결과 식별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리스크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성과 목표 및 지표(KPI)를 통해 진척도를 관리합니다. 모든 리스크 평가 결과와 개선 현황은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영진 회의체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RMAP 등 인증 제련소 거래 비중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합니다.

### [현장 실사 시정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현대자동차는 2025 년 하반기 3 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식별된 총 58 건의 부적합 사항(Major 47 건, Minor 11 건)에 대해 독립적인 제 3 자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시정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부적합에 대해 협력사가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사업장의 실사

시점 및 이행 단계에 따라 개선 이행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현장 실사 중 식별된 위험 화학물질 보관 불량 및 안전 표지판 누락 등 물리적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유해 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2 차 보관 용기를 전면 설치하고, 대규모 신규 화학물질 창고를 완비하여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내 누락된 비상구 표지판과 비상 조명을 설치하여 근로자 대피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 **테일링(광물 찌꺼기) 시설 관리 고도화:** 테일링 시설의 침식 및 붕괴 위험 등 중대 환경·안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자동화 순찰 및 산사태 모니터링 체계를 신규 도입 중입니다. 아울러, 인근 산업단지 및 유관 부서와 연계한 테일링 사면 붕괴 대비 합동 비상 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환경·안전 경영시스템 내재화:** 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및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국제 표준 규격의 인증 취득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력사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 정책 개정 및 인증 심사 절차를 진행하며 구조적인 관리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협력사 시정조치 요구 프로세스]

감사 및 실사 결과 리스크가 식별되는 경우, 현대자동차는 1 차 협력사에 시정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시정 조치 요구서에는 식별된 문제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개선 목표'와 구체적인 '시정 조치 계획', '책임 주체' 및 '완료 기한'을 작성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협력사는 조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등 '증빙 자료' 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차 협력사는 약 2 주 내에 식별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현대자동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 차 협력사는 그 하위 공급망에 리스크 내용을 전달하고, CAP 이행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과정에서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에 따라 1 차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여 하위 공급망까지 개선 노력이 전파되도록 합니다.

#### [책임있는 거래 종료(Disengagement) 및 영향 평가]

자발적 시정조치가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선 당사는 1 차적으로 교육 및 현장 실사 컨설팅 등의 수단을 통해 협력사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여전히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선 노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등 모든 개선 노력이 실패한 경우, 현대자동차는 내부 정책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중단 또는 종료를 최종 결정하기 전, 당사는 이 결정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거래 종료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인권, 생계, 환경적 피해를 분석하며, 종료가 불가피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기간, 대체 조달 계획, 근로자 지원 방안 등의 완화 조치를 사전에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바. 결과 보고 및 공개

#### [책임/분쟁광물 관련 고충처리]

현대자동차는 책임/분쟁광물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환경 훼손, 뇌물 수수 및 부패,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젠더 기반 폭력 등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임직원, 협력사, 시민사회단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원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엄격히 금지하는 보호 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2025 년 고충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정책 발표, 상생 레터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내부 채널 이외에도 RMI(책임광물 이니셔티브)의 온라인 고충 처리 메커니즘, RBA(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고충 처리 시스템,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s)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외부 비사법적 고충 처리 절차 또한 유효한 제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의 범위는 책임광물 정책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적법성, 윤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합니다.

2025 년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충 건수는 19 건이며 고충 책임광물 관련 고충은 0 건입니다. 당사는 각 제보 사례 접수 시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정 또는 구제 조치를 취하고, 조사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 제보자에게 주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제보자가 당사 책임자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광물 관리 목표]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은 제련소 및 정제소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사에게 Copper Mark, IRMA(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등 공신력 있는 산업 이니셔티브 및 제 3 자 인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합니다.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 광물별 RMAP 인증 확대 목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RMAP 적합 판정 제련소 사용 약속서를 징구하여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책임광물 관리 활동 내역과 관련된 성과 및 프로세스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현대자동차는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및 관리 활동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된 광물 관리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 외 책임 있는 조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연 1 회 이상 현대자동차 웹사이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책임광물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시합니다.

주요 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있는 조달 관련 정책 및 절차
- 공급망 리스크 평가 결과(식별된 주요 리스크 포함)
- 고충 접수 및 처리 결과
- 리스크 완화 및 지속적 개선 활동의 진행 상황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협력사, 일반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명료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나아가, 일방적인 정보 공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NGO, 평가기관, 고객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별적인 정보 공개 요청과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 년 대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총 14 건의 책임광물 관련

요청 및 질의에 성실하게 대응하여 당사의 공급망 관리 노력과 성과를 투명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책임광물 관련 대외 요청/질의 대응 현황]**

구분	단위	2025
이해관계자 요청 대응	건	14

## [4. 부록(Appendix)]

### 가. 주요 이니셔티브 가입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전반의 인권, 노동,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조달 실사 접근 방식의 효율성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1.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산업 연합인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의 회원사로서, 공급망 전반의 노동, 인권, 환경 기준 강화를 위한 RBA의 비전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근로 조건, 환경 보호 및 경영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하며, OECD, UN, ILO 등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의 행동 규범을 제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RBA 행동 규범을 준수하며 사업장 운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RBA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 규범을 수립하여 공급망 관리 체계에 내재화하고 협력사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RBA를 통해 공급망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 간 대화 및 기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 Drive Sustainability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개선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인 Drive Sustainability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 인권 및 노동 환경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대자동차는 Drive Sustainability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을 실현하여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3.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



현대자동차는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MI)의 회원사로서, 책임/분쟁 광물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MI는 기업이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RMAP을 통해 제련소와 정련소가 RMAP 표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도록 지원합니다. 현대자동차는 RMI의 실무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RMI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과 협력하여 공급망 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RMAP 평가 소개

RMI 의 대표 프로그램인 책임광물보증프로세스(RMAP)는 기업들이 공급망 내 책임 있게 조달된 광물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RMAP 는 글로벌 금속 공급망에서 참여 주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병목 지점(pinch point)'에 초점을 맞추며, 제련소 및 정제소의 관리 시스템과 조달 관행에 대한 독립적인 제 3 자 평가를 통해 RMAP 표준 준수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 평가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여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제련소의 전사적(기업 차원) 관리 프로세스를 확인합니다. RMAP 표준은 OECD 실사 지침, 유럽의회 규정(EU) 2017/821, 미국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출처 :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responsible-minerals-assurance-process/>